

**B-10**

## 최근의 대형 재난에 있어서 시민안전의식 실태 분석

김태환, 박남권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Analysis on the actual condition concerning the citizen's safety  
consciousness in the recent large disaster

**Tae-Hwan Kim, Nam-Kwun Park**  
*Department of Security Service, Yongin University*

### 1. 서론

1971년 대연각호텔 화재를 시작으로 90년대를 들어서면서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99년 씨랜드 화재에 이어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에 의한 화재 참사등 끊임없는 인명대형재난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지난 30여년간 눈부신 발전을 해오면서 성장의 밝은 면뿐만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고통들이 우리주위에 점점 나타나고 안전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였기 때문에 끊임없는 대형 재난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대형참사의 근본원인은 『안전수칙 미준수』, 『관리자의 부주의』, 『책임의식의 결여』 안전과 관련한 가치관의 부재에서 유발되었으며 이의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전반적인 인명 경시 풍조, 안전무시, 무사안일주의, 이기주의 등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있겠으나, 안전 교육의 미비, 안전 불감증 등의 원인이 가장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거의 재난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보고자 많은 사람이 운집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안전의식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현실에 적합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안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환경과, 국민 스스로가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며, 안전 선진국의 토양을 뿌리내려 재난·재해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

###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본 연구에서는 대형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 서울 및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시민에게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사용빈도에서부터 위험경험 여부까지 그리고 안전관련 법체계등을 분석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9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앙케이트 조사항목을 이용, 2003년 5월 29~6월 21일 까지 (23일간)의 조사기간을 통해 서울 및 경인지역을 대상으로 조사자가 현지를 직접 방문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으며, 다음의 범위와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조사 대상으로는 19세 이상 성인남녀 1400명을 선정하였고 시민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다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번호	세부 설문 조사 내용
1	다중이용시설 이용빈도
2	다중시설이용시 위험 경험여부
3	대형재난 사건에 대한 기억
4	위험발생시 조취유형
5	다중이용시설의 관리 실태
6	시민안전문제의 개선실태
7	공공과 민간의 관리실태 비교
8	다중이용시설물 사건발생의 가장 큰 원인
9	재난관리를 위한 법체계평가
10	시민안전의식평가
11	대책이 시급한 재난사고분야
12	안전관련 법제기준의 완화에 대한 입장
13	안전한도시 관리에 가장 시급한 사항
14	재난사건 방지를 위한 가장 우선적 분야
15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우선적 노력필요분야

### 3. 안전의식 실태 조사 및 분석

#### 3.1 세부설문조사 내용

#### 3.2 설문조사결과

##### 1) 다중이용시설 이용 빈도

버스터미널, 철도역, 병원, 백화점, 호텔, 극장등 다중이용 시설의 사용빈도의 결과는 월 5회 이하 이용자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6회 이상 10회 이하 그리고 20회 이상이 2001년도 조사결과 때 보다 3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화재, 붕괴등의 사고 발생시 대규모의 인명피해와 재산의 손실이 발생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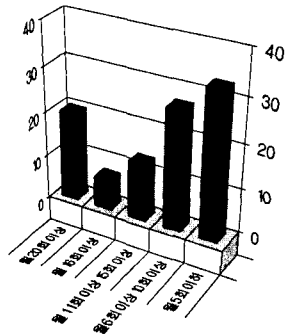


Fig. 1. 다중이용시설 이용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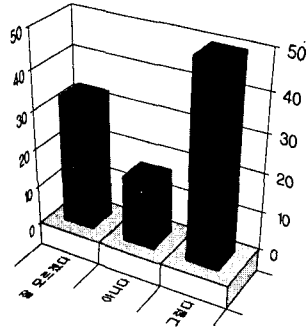


Fig. 2. 다중이용시설이용시 위험 경험 여부

2) 다중이용시설 사용시 위험 경험여부

백화점, 지하상가, 병원, 시장, 호텔, 관람시설등의 이용시 위험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중 50%가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안전위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원인으로 는 건물의 균열, 노후화된 시설, 복잡한 구조와 전기배선, 밀폐된 공간 안에서의 화재 가능성 을 언급하였다.

3) 대형재난사고에 대한 기억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대구지하철사건의 경우 시민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장소 또는 짧은 시간에 다수의 군중들이 모이는 곳에서의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이로 인해 안전에 대한 불안 심리, 사회적충격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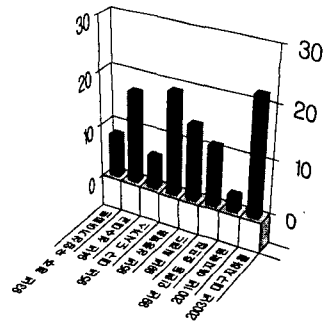


Fig. 3. 대형재난사고에 대한 기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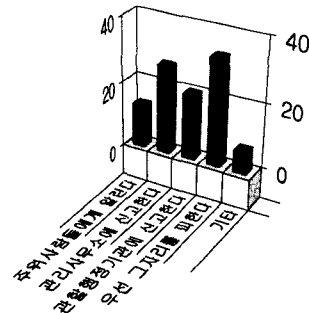


Fig. 4. 위험상황 발생시 조치 유형

4) 위험발생시 조치유형

조치유형 결과는 위험요소 발생시 우선 그 자리를 피한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관리사무소에 신고, 관련 공공기관에 신고하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린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보인 응답자가 응답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사건 예방을 위한 사건 신고센터의 설치, 신고전화의 활용, 신고 요령과 행정기관의 조치결과에 대한 홍보를 통해 시민의 참여의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5)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실태

관리실태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 안전관리에 대하여 긍정적인 견해를 보인 시민보다 이번 대구지하철 사건 이후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응답자가 월등히 높은 결과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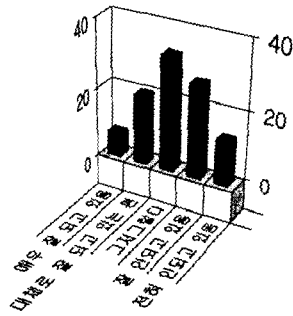


Fig. 5.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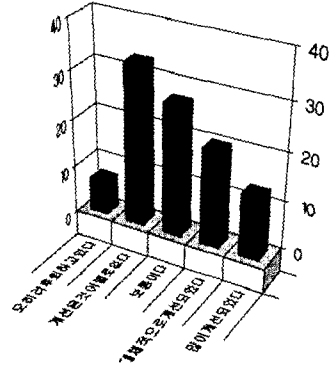


Fig. 6. 시민안전문제의 개선실태

6) 시민안전문제의 개선실태

안전문제의 개선여부에 대해 개선되고 있다는 응답을 한 응답자의 비율이 33%, 부정적인 응답자의 비율이 67%로 나타나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개선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7) 공공과 민간의 관리실태 비교

공공과 민간의 관리수준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 33%의 응답자가 공공, 민간이 모두 잘 안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민간이 더 잘 관리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27%)가 공공이 더 잘 관리하고 있다는 응답자(20%) 보다는 많은 결과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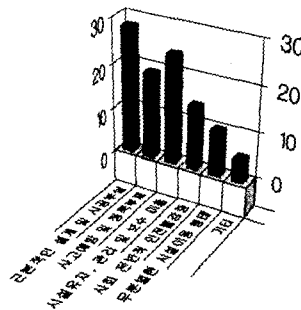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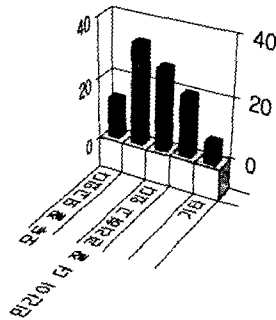


Fig. 7. 공공과 민간의 관리실태 비교 Fig. 8. 다중이용시설물 사고 발생의 가장 큰 원인

8) 다중이용 시설물 사고발생 원인

대형재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가장 큰 원인으로 근본적인 설계 및 시공부실(28%)을 꼽았으며 체계적인 시설유지관리 미흡, 사건예방 정책부재가 43%로 나타나 시설물의 건설과정에서 부실한 설계, 공사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 재난관리를 위한 법제체계 평가

재난방지를 위한 법제도와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질문에 2000년 응답자 평균 40.3점, 2001년 응답자평균 41.5 2003년 응답자평균 46%로 다소 높아 졌으나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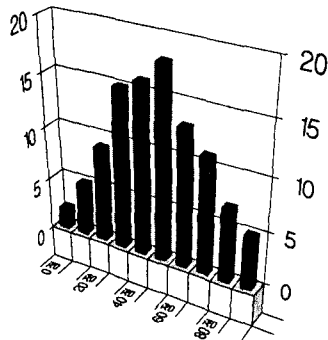


Fig. 9. 재난관리를 위한 법제체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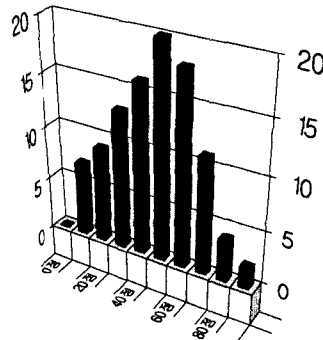


Fig. 10. 시민 안전 의식 평가

10) 시민 안전 의식 평가

시민의 안전의식은 2001년의 평균 39.5점과 2000년 평균 40보다 2003년 조사결과의 평균 46.3점이 다소 높아 의식의 변화가 보여 진다.

11) 대책이 시급한 재난사고 분야

시민들의 응답 중 빈번하게 일어난 교통사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왔고, 2001년 조사결과와 비교시 교통사건과 화재사고, 가스사고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다소 증가하고 건축물, 구조물의 붕괴사건에 대한 대책을 꼽은 응답자는 다소 감소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재난사고의 우선순위 분야는 바뀌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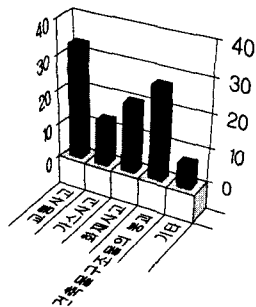


Fig. 11. 대책이 시급한 재난사고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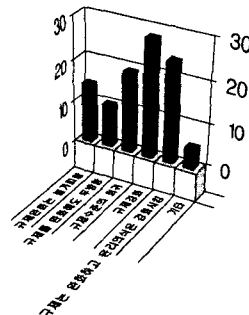


Fig. 12. 안전관련 법제기준의 완화에 대한 입장

12) 안전관련 법제 기준의 완화에 대한 입장

외환위기 이후 국제 완화, 정부기능의 축소 등의 정책방향에 의해 안전관리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각종의 규제완화조치에 응답자의 86%가 앞으로 더욱 강화되거나 과거의 규제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응답하여 2001년의 조사결과(73.3%)보다는 다소 증가하였다.

13) 안전한 도시관리에 가장 시급한 사항

안전한 도시 관리를 위해서 부설시공에 대한 처벌의 강화가 28%의 응답자가 답하였고 유지·관리주체의 책임소홀, 책임회피 등에 대한 처벌을 통해 문제해결 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시민운동차원에서의 안전감시, 안전문화개선이 시급하다는 응답자가 20%, 하자보수·안전진단 데이터 베이스 구축, 법제도의 개선, 안전관리의 정보화·공개화라고 응답한 응답자 비율이 2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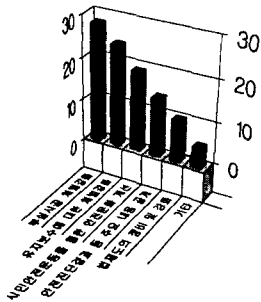


Fig. 13. 안전한 도시관리에 가장 시급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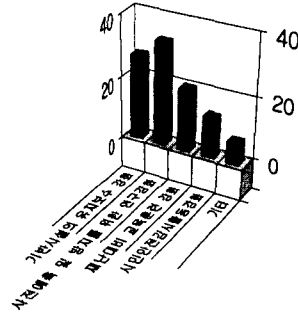


Fig. 14. 재난사고방지를 위한 가장우선적 분야

14) 재난사고 방지를 위한 우선적 분야

재난사고 방지를 위한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에서 응답자중 다수가 사고 예방을 위한 유지 관리, 연구조사 분야에 가장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현실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재난의 사전 예측과 같은 예방적인 분야에의 투자필요성을 지적하는 미래지향적이고 선진국형인 시민의 판단 의식변화가 나타난다.

15) 안전문화정책을 위한 우선적 노력 필요분야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재난방지, 안전감시를 위한 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25%로 2001년 (24.8%)보다 다소 증가하였고 다른 항목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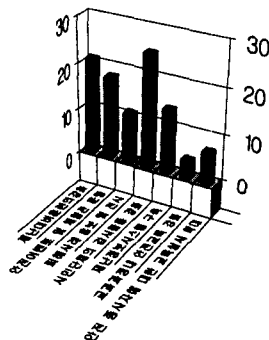


Fig. 15. 안전문화정책을 위한 우선적 노력 필요분야

## 5. 결론

안전의식을 조사한 결과로서 우리국민들은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와 같은 대형재난사고를 수없이 겪으면서 현재 상당한 불안심리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과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절실하며, 그 구체적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에서 조사결과를 토대로 그에 따른 개선대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 국민에 대한 안전의식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둘째, 교육훈련, 체험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한다.

셋째, 정부의 안전홍보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TV, 라디오등 매스컴의 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안전봉사와 같은 산학관민의 분담역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국가는 법의 개선, 조직의 재정비 및 시스템의 효율적 운용과 재구축을 하여야 한다.

이제부터 이러한 과거의 대형재난경험들을 바탕으로 보다 안정되고 보다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고 의무이다.

또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문제점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내고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같은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만 안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추가적으로는 수재해 관련 항목을 포함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전 국민안전의식 조사를 할 필요가 있으며, 시대별로 비교분석함으로써 국민 스스로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의식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그에 따른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대처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1.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정책연구소, 안전정책 포럼, 1998.
2. 삼성화재상해보험주식회사, 안전관리 세미나, 1999.
3. 국무총리실 안전관리기획단, 안전의식에 대한 실태 조사보고서, 2000.
4. 消防に関する世論調査 - 日本 東京都 消防防災廳. 1999.